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빛바랜 영사기 소리만 요란하다

“여보세요, 거기 청산이지요?”
“뭐리구요. 아, 여보시오,
판수리, 거시기 판수리인디
유, 어딘가요?”
“업니, 저예요, 전주, 전주예요!”
“응, 어디라고? 청주, 청주 용범이
니?”
“어머님, 청주가 아니구, 전주요, 전
주랍니다.”
“어, 전주? 전주, 그렇지 올 여범이,
셋째?”
“네, 여범이, 아들 여범이 맞아요,
어머니, 이제야 제대로 여범이를 맞
추셨네요. 건강하시죠? 어머니?”
“여기, 여범이, 전주, 전화 받아보세
유.”
“.....”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곳이 있다. 바로 충북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285번지 6번이다. 초
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봐서 낮 놓
고 기억 자도 못 쓰신다. 더 부모님과
4남 3녀의 구수한 목소리와 웃음소리
가 그리운 곳이다.

전주에 사는 아들 여범이 80을 넘
긴 청산 판수리의 어머니,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나누는 짧은 대화이다.
그런데, 아들과 어머니의 통화 내
容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을 살짝 보
여주고 있다.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
렇다고 대화가 온전하게 다가오지도
않는다. 중간 중간 대화가 끊긴 듯,
어설피고 난감한 부분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감정 속
에서, 저 밑바닥부터 차오르는 묘
한 감정이 있다.

궁금함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사람
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곳이 바로 청산면 판수리다. 부모님



박 여 범

용복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에 대한 그리움, 사랑, 후회, 보고 싶
은 친구, 보청천이 교차하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머루, 상추, 달래며, 씹바귀며, 참외,
오이까지 이름 낮은 것들이, 내 마음
열지 않으면 내 마음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도 함께여서 서로 나누며 아
껴주기 좋은 옥천 청산 판수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넓고 넓은 마당이라 하여 붙여진
동네 이름
판수리, 그 판수리에는 여섯 개 반
이 있고
알지말 을지말 부르실어 있어
색깔을 달리하는 곳
삼반 사는 곶동수는 다리 건너
육반 여범이네 집에 오고
최시현 오빠 만나러 육반 사는
경희가 콧노래 흥얼거리다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이구오 번지
옥 반은 충청북도행
완행버스에 담긴, 방울토마토, 고구
마, 들깨, 참깨, 쪽파, 양파에다가
덜은 익숙한 느리디느린 충청도
사투리 가득 실어 부부부 출발하면
여덟 살 초등학교 입학식이 시작되

는 운동장엔 경운기 대열 힘투하고
포크레인 기사 영희가 부르릉 부우
웅 굉음을 울린다

북게 물든 판수리 이구오 번지
옥 반 수퍼에는 주인 모를
커다란 솔뚜껑에 지글지글
삼겹살이 익어가고
누군가 어깨를 툭 치갈래 돌아보니,
흰갑을 바라보는 아들
희망의 끈을 찾은 그곳엔, 두 팔
벌려 다가오라 손짓하며
관객 없이 돌아가는 빛바랜
영사기 소리만 요란하다

“박여범
알지말 을지말 부르실어 있어
색깔을 달리하는 곳
삼반 사는 곶동수는 다리 건너
육반 여범이네 집에 오고
최시현 오빠 만나러 육반 사는
경희가 콧노래 흥얼거리다

금강을 휘감고 도는 옥천의 기름진
산하에는 자라난 담근, 방울토마토,
고구마, 들깨, 참깨, 쪽파 양파를 키
워내는 보청천이 흐른다. 보은과 청
산을 이어주는 보청천을 끼고 자리
잡은 마을이 나의 고향 청산면 판수
리 285번지 6번이다. 청산에서 가까
운 지역으로는 옥천, 영동, 보은, 무
주 등 낯설지 않은 지역으로 전환했
의 대표적인 곳이다.

그러다 보니, 청산장은 이곳저곳에
서 노인 사람들이 5월에 한 번 열린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스페인 시위대 “더 나은 사회환경” 요구



2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더 나은 사회 환경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려 수
산 쓴 한 여성이 '민주주의'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독자제언

스쿨 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
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전국 곳
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
전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
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
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곳인 만큼 교통 소통보다는 안전을 우
선시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충
격에도 사망가능성이 높고 도로와 인

도를 구분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등 위
험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 만큼 최소
한 스쿨존에서는 차가 우선이 아닌 어
린이를 우선하여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단속에 의한 피동적인 행동보다는
근본적인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문제
의 심각성을 깨닫고 능동적인 태도로
불법주정차 근절, 제한 속도 준수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만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의 원동력
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신혜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설

송하진 도지사의 전북 대도약

전북도도는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
다고 여러 번 말했다. 도지사가 직
접 말한 그 발언들은 자신감이 넘
쳐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
가 민선7기 2주년의 기자회견 자
리에서 또다시 전북 대도약을 말
했다.민선 7기 후반 상선약수의
지대로 도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5대 정책 과제에 방점을
찍어 강조했다. 그 5대 정책 과
제들은 알아볼 만한 것들로 상취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 노력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기대이다.

그런데 여기 전북 대도약과 관련
해 할 말이 있다. 대도약은 한 두
가지 현안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몇 기업
을 유치하거나 몇몇 사업에서 진
척을 보았다고 해서 대도약이 단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리고 몇몇 성과가 있다고 해도 그
게 일자리 창출과 상관이 없다면
무용한 것이다. 늘 요구하는 바이
지만 전북 대도약은 일자리로 말
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의 공감
을 얻을 수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전북 대도약의
성격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론이다.

전북도도는 도민을 먹여 살릴 기
대주로 오래 전부터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을 폄아왔다. 전북도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탄소산업의
미래 전망을 좋게 보았서였을 것
이고, 농도 전북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였을 터이다. 그리고 부가
가치를 지닌 블루오션이라 판단했
기에 그랬을 터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전북도는 대도약
을 위해 탄소 산업과 농생명 분야
에 더 많은 힘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켜야
한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
에게 일자리 창출은 최고 가치이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전북 대도
약 사업을 말할 때마다 일자리 창
출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야겠다.
전북도도는 대도약 의지를 일자
리로 말해야 한다. 일자리로 말하
야 한다는 격려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일
반 도민에게도 일자리 창출은 최
고의 가치이다. 일자리 창출이 있
어야 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
느냐는 것이다.

노인 친화형 일자리에도 마음을 써야

전북도도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 하나들이 아니
기 때문이다. 그 많은 것들 중 우
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것은 다양
한 일자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고령
화 사회가 분명하다. 도내 전체 인
구 182만3천9백 명 중에서 65세 이
상의 인구가 38만5천 명으로 전체
비율 20%를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친화형 일자
리도 생각해두고 있어야겠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지난 수 년간 제
일 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
년 인구 유출에 더하여 노인 인구
의 증가는 우리 지역의 고민이 아
닐 수 없다. 해마다 젊은층의 인구
는 줄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우리 지
역이 활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
다. 저변에 인구 감소로 도내 읍면
동의 77%가 소멸 위기라는 진단
이 있었는데 전북도와 각지자체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야겠다.

그래서 하는 다시 생각하는 것이

있다. 저변에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이 어찌됐는지 궁금하
다. "인구양을 쌓아 전북 소멸을
막자"고 했는데 말이다. 예산에서
울시가 65세 인구 15% 초과를 격
정했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
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대로 속
수무책으로 있어선 안된다. 서울
경기 대전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진정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다시 이어질 지도 모른다.

우리 지역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
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 증
가 추세이다. 2018년에 19.27%이던
것이 2019년부터는 앞에 밝힌대로
이다.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이 있다. 전
북도도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지도
한데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 무
슨 말이나면 노인들을 위해 자잘
한 일자리라도 많이 마련해야겠
다는 것이다. 노인 증가가 계속될 공
산이 큰데 그들을 위해서 노인 친
화형 일자리 창출에도 마음을 써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